기원전 1천년기 요령~한반도 비파형동일문화로
동물장식의 유입과정

모안

목차
I. 서언
II. 비파형동일문화권의 동물장식의 검토
III. 동물장식의 분류
IV. 시기별 북방초원계 청동기의 유입양상
V. 고찰 - 비파형동일문화권의 사회변동과 한반도 북방계 문물의 유입
VI. 결론

요 약
본고에서는 기원전 1천년기 요령~한반도 지역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오로도 청동기(북방계 청동기)로 꼽히는 동물장식을 중심으로 비파형동일문화권으로의 초원지역 청동기의 그 유입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로 그 유입과정은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기의 비파형동일문화 전기에는 태안인 기중 문화의 남산한과 소림석관과 같은 유적이 영향으로 청동기와 동물장식이 받아들인다. II기는 비파형동일문화 중기에에는 태안인 기중 문화가 총파고 태안산인 일대의 벀타령문화로 교류하면서 태양 문화 특유의 동물장식이 고인 관정화와 함께 도입되어 비파형동일문화에 유입되는 시기이다. 또한 태안의 초원 지역에서는 일부 동물장식이 발견된다. III기는 비파형동일문화 후기~초기세기 동검 단계에는 원시적은 풍의 경향으로 비파형동일문화이 소멸되며 북방계 문화로 사라진다. 대신에 태안의 초원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장식과 자연형대가 동반되며 북방계 문화가 유입된다. 특히 조형대의 경우 유입된 것이 아니라 태안인 문화에 보도된 السيد의 문화가 초원지역에 확산되면서 그 여파로 유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상황과 같이 요령~한반도 지역으로 유입되는 북방의 동물장식은 원시적은 풍의 경향으로 한반도 지역에 전파되었다. 그 결과로 북방계 지역의 유입은 당연히 동물장식의 유입이 주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북방계 지역의 유입은 단순한 주민의 이동이나 문화의 전파적인 시각보다는 비파형동일문화의 사회발전과정에 따른 동등적인 문화요소의 유입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오로도 청동기, 북방계 청동기, 태양 문화, 병합동일문화, 태안인 기중 문화, 상호교류, 
조형대, 고인 관정화, 소림석관, 동물장식

※ 부경대학교 사학과, 전자우편 kanginuk@hanmail.net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정교육연구처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입니다(KRF2006-2-A0334(101672)).
I. 서언

한반도 서형동검문화 단계에 소위 '오르도스식' 청동기문화의 존재는 1920년대 이래 한국고고학의 지속적인 논쟁거리였다(藤田亮策・梅原末治 1947; 김원봉 1972). 한국의 기본적 인 청동기시대 문양인 기하학문양과 다른 유물 형식 동물, 동물상 짐승이 나타난다는 점은 한반도 고대문화의 특성기원의 동상과 함께 학계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어왔다. 하지만, 이전의 연구는 기존의 북방계 청동기의 논의는 중국 북방 및 시베리아의 청동기시대 문화상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중국 북방 초기지역을 20세기 초~중반의 수입된 '오르도스식 청동기'로 한데 동그랗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 비교도 매우 추상적이며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주저하다시피 북방계 또는 초원계라고 명명할 수 있는 청동기가 나오는 지역은 아시아만을 보봐도 남부 시베리아-오르도스 고원, 북동지구의 燕山山脈 일대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더욱이 초원계 청동기는 한반도 뿐 아니라 연대 중국 각 지역의 무덤에서도 출토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물관적인 범위를 설정하고 교류를 증명할 수 있는 유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본고는 젊은이 지난 몇 년간 지속해온 연구의 북방계 청동기와 한반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의 일환으로 준비되었다. 비파형동검문화 이전 단계인 가라숙문화기(기원전 13~9세기)는 큰 문화의 흐름보다는 토착문화에 기반하여 일부 청동기만이 滄東과 한반도에 유입되었음을 밝혔으며(강인욱 2009), 한반도 남부에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동물형대구는 기원전 5~4세기에 연구에 의해 확인된 燕山山脈 일대의 玉環廁文化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점진적으로 한반도로 들어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강인욱 2004a).

본고에서는 滄東~한반도의 청동기문화를 대표하는 기원전 1천년기에 해당하는 비파형 동검문화의 북방계 청동기문화를 일별하고 요령지역~한반도로의 북방계 유물의 유입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요령~한반도의 비파형동검문화 단계에서 출토되는 대표적인 초원계통의 유물인 동물장식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로 요령~한반도 지역에 유입되었는지를 시기별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를 통해서 초원계통의 동물장식의 출토를 단순히 한반도 청동기문화의 기원지로 볼 것은 없으나, 비파형동검문화를 영위한 사회의 변동이라는 내부적인 요인과 연구의 영향과 초원계 문화의 확산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북방계 청동기가 한반도에서 출토된다는 점을 밝혀보고자 한다.